

이산가족 실태와 정체성*

윤인진 · 백경민(고려대)

I. 서론

21세기에 들어서 한국사회는 놀라운 인구학적, 문화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2006년 8월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87만 명에 달해 넘어 한국 인구의 1.8%를 구성하고 있다. 국제결혼도 급증하여 1990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127,762명에 달한다. 2005년 한국의 혼인신고 건수의 13.6%(농어촌지역은 35.9%)가 국제결혼이다. 등록외국인, 불법 체류자, 외국인 자녀를 포함하면 국내의 외국인 인구는 2006년 8월 현재 9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다. 현재의 증가추세로 보면 향후 5년 이내에 출입국자는 5천만 명에 육박하고 체류 외국인도 12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상황변화를 반영하듯 최근 학계와 정부의 관심사는 다문화사회에 관한 것이다.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우리 사회의 새로운 소수자들이 한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연구자, 정책입안자, 시민단체들이 주력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우리 사회의 '원조' 소수자집단이며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이산가족들은 우리의 관심 밖으로 밀려가고 있다. 현재 이산가족 1세대의 대다수가 70대 이상의 고령자이고 이산가족 2,3세대의 이산가족 정체성이 약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 집단이 독특한 사회문화심리적 특성과 결집력을 가진 사회집단으로 존속할 것인지 아니면 소멸될 것인지 주의 깊게 관찰할 만하다.

1945년 해방 이후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가족이 남북한 지역에 분리된 상태로 거주하고 있는 자와 그 자녀를 이산가족이라고 부른다. 통일부 훈령 제357호 "이산가족 교류 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이산가족은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현재 남북으로 흩어져 이는 8촌 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객관적인 조건에 의해서 자신 또는 자기 가족을 이산가족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산가족의 규모와 범위, 그리고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혼란이 생겨난다. 통일부는

* 본 원고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6년 12월 20일에 개최된 2006년 한국인구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의 발표를 위해 준비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문헌연구를 해 준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의 신동은 과 김령희에게 감사한다.

1996년 ‘남북이산가족 관련 기본통계’에서 이북5도위원회의 통계를 인용해서 남한거주 이산가족은 1세대가 122만 6천명, 2,3세대를 모두 포함하면 약 767만 명이라고 추정하였다. 한편 통계청은 ‘2005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이산가족은 71만 명(총인구 대비 1.5%)으로 추정하였다. 통계청의 추정치는 통일부 추정치의 1/10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과소 추정되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조사기관에 따라 이산가족 규모에 큰 차이가 생기는 것은 조사방법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이산가족 당사자의 이산가족 정체성에도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즉 자신이 월남한 이산 1세대 이든 또는 부모가 이산가족이라 자동적으로 이산 2세대가 되든 스스로 이산가족이라고 동일시하지 않으면 통계에서 누락되기 때문이다. 특별히 이산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있는 이산 2,3세대는 자신을 이산가족으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산가족 통계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문제가 이산 1세대의 고령화와 맞물리면서 이산가족의 규모는 갈수록 줄어들 전망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산가족 규모와 실태, 이산가족 상봉 및 교류와 같은 정책수요의 근간이 되는 이산가족 정체성에 대해서 조사하고자 한다. 세대별로 정체성의 수준과 내용이 크게 것이기 때문에 이산 1세대와 2세대(3세대 이하 포함)간에 비교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산 2세대의 정체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계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끝으로 연구결과에 따라 정부의 이산가족정책을 이산가족의 욕구와 필요에 적합하게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II. 자료 및 연구방법

1. 자료

본 연구의 자료는 통일부의 의뢰로 북한인권정보센터가 2006년 9~11월에 이산가족 510가족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한 직접면접법을 실시하여 수집하였다. 표본추출은 이산가족 전체 모집단에 가장 가까운 많은 규모의 명단이면서 표집이 가능한 조건으로 명부가 작성된 이북 5도 위원회 117만 명의 명부를 표집에 활용하였다. 이 명부는 2001년에 정리된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 자료이며, 117만 명의 이산가족 명단이 성별, 연령별로 정리되어 있어 확률표집을 시도할 수 있었다. 표본추출은 층화표집과 계통표집에 의하여 연령대별, 지역별 표본수를 결정하고 대상 지역의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단순무작위표집에 의해 표본 추출을 시도

하였다.

본 조사는 훈련된 전문 조사원이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소규모의 대면면접 또는 우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서 조사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조사에서는 훈련된 전문 조사원이 대면면접을 실시하여 응답률을 높였고, 연로한 이산 1세대 응답자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조사원이 설명하여 오답률을 감소할 수 있었다.

이산가족의 정체성은 이산 세대에 따라 크게 다를 것이기 때문에 본 조사에서는 이산 1세대와 2세대가 적정 비율로 표본에 포함되도록 설계하였고 설문지에서도 세대를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조사대상자 표집과정에서는 세대가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사원은 1세대가 거주하는 가정의 경우 1세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1세대가 사망하였거나 생존하고 있지만 조사가 진행될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 가족의 2,3세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2,3세대를 조사할 경우에도 이산 1세대에 대한 인적정보를 조사 항목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산을 직접 경험한 세대를 이산 1세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를 2세대로 규정하였다.

조사항목은 크게 인구변수로 구성된 ‘기본사항’과 ‘혼인 및 가족관계’, ‘이산시기 및 사유’, ‘이산가족 상봉’, ‘재북가족과 교류’, ‘정체성 문제와 애로사항’, ‘이산가족 정책에 대한 인식’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이산가족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미국에서 민족정체성의 척도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피니(Phinney, 1992)의 “다집단 민족정체성 척도(Multigroup Ethnic Identity Measure)”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12개 문항들 중 내용이 중복되는 문항들을 피하고 한국의 이산가족 상황에 적합한 6개의 문항들을 척도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측정한 이산가족 정체성 수준을 세대별로 비교하고 이산 2세대의 정체성 수준에 미치는 요인들을 다변량 통계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정체성 수준의 결정요인으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 외에도 구조적 동화(교육 및 계층지위 등)와 가족 내 사회화 요인을 가정하고 각 요인의 상대적 효과를 측정하였다.

2. 조사대상자의 배경특성

조사 결과 조사대상자의 89.4%가 생존해 있었고, 7.7%는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비율은 3%로 낮게 나타났다. 성별 비율은 남성 51.6%, 여성 48.4%로 남성이 다소 많게 표본에 포함되었다. 이산 1세대의 연령은 70대 가 44.4%, 80대 이상이 41.3%로 아주 고령화되어 있다. 이산 2세대의 연령도 70대가 35.8%, 80대 이상이 46.3%로 이산 1세대 못지않게 고령화되어 있다. 세대별 비율은 이산 1세대가 전체 510명 중 308명으로 60.4%, 이산 2세대

가 202명으로 39.6%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현 거주지는 서울, 경기, 인천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고, 이산가족의 88.7%가 수도권에 집중 거주하고 있다. 학력은 고등학교(5년제 중학교 포함) 33.9%, 전문대 이상(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25.2%, 국민학교 23%, 중학교(3년제) 11.4%의 순서로 분포되어 있다. 직업분포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자들이 대부분 고령이기 때문에 이미 은퇴하고 일을 하지 않지 않는 사람들이 77%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는 현재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3.4%로 두 번째로 많았다.

Ⅲ. 선행연구와 이론적 검토

1. 선행연구

국내의 이산가족 연구는 시기적으로 연구주제와 문제의식이 변화해왔다. 1970년대까지는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논의가 체제, 이념 및 사상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사실상 금기시되었다. 이 시기의 연구로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간한 이산가족백서(1976)와 권태환(Kwon, 1977)의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 이산가족백서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는데 주력하여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권태환의 연구는 월남, 월북인구를 분석하여 이산가족문제를 학문적으로 접근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980년대에는 민주화와 더불어 이산가족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1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주최의 학술회의(‘이산가족의 실태와 재회방안’)와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주최의 학술회의(‘민족이산: 현실과 과제’)가 개최되었다. 박명선은 이산가족찾기운동에서 벗어나 ‘월남인 연구’라는 새로운 연구분야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기존의 가족학 연구가 남북이산가족문제를 도외시한 것을 지적함으로써(이효재, 1985), 가족주의, 사회적 관계망, 연고자와의 관계 등의 측면에서 이산가족문제를 바라보려는 시도가 시작되었다(김명혜, 1988; 박명선, 1991; 이성희, 1993; 김성은, 1995)

1990년대에는 강정구(1992)가 월남문제에 대해 반공 이데올로기적 입장에서 왜곡하는 것을 지적한 것을 시작으로, 역사학계에서도 북한의 민주개혁과 관련하여 월남문제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박명림, 1996; 강인철, 1992, 1993).

이산가족 연구의 목적은 시기가 지날수록 이산가족의 규모와 분포, 그리고 이들의 인식과 정책수요를 조사하여 이산가족 문제 전반에 대한 기초 정책 자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특히 최근의 연구들은 이산가족의 인구학적 배경이나 정책기초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이산가족 정책 수립 및 집행에 거시적인 정책대안의 기초를 마련한다는 데 그 의의를 둔다(북한인권정보센터, 2006).

선행연구에서는 이산가족의 범위를 ‘월남인’에 집중해 왔다. 이로 인해 월북인 유가족, 미송환 국군포로, 인민군포로 당사자와 그 유가족, 남북과공작원 출신 가족들 등의 다양한 이산가족 유형에는 큰 관심을 갖지 못했다. 그 결과 이산가족들의 내부적 다양성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이들을 일괄적으로 동질집단으로 이해하는 편향적 시각을 유지해 왔다. 연구자들의 시각에서도 초기에는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치적 목적성을 띠는 경우가 많았다. 이후의 연구에서도 남북간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정하려고보다는 남한 중심으로 편향된 시각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산가족문제에 대해 진정으로 민족간의 화해와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접근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산가족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연구에서 주요한 주제가 정체성이다. 그런데 이산가족 정체성 연구는 주로 이산 1세대에 초점을 두어 왔고 이산 2,3세대의 정체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매우 미미하다. 앞으로 이산가족의 향방은 이산 2,3세대들이 이산가족으로서 얼마나 정체성을 갖느냐에 달려다고 할 때 이산 2,3세대의 정체성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

김귀옥(1999)의 이산가족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월남인 1세대들의 경우 이산가족이라는 의식이 뚜렷하지만, 월북인 유가족의 경우에는 이산가족 의식이 분명하지 않다. 이들은 스스로에게 이산가족 정체성을 부여하지 않고 이를 숨기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냉전이데올로기 아래서 월북가족을 이산가족문제에서 철저히 배제해 왔기 때문이다.

초기의 월남인들은 난민으로서 인정받지 못한 채 자유를 찾아 의거한 사람이며 소위 ‘빨갱이’일 가능성이 있는 모순적인 존재로 담론화되었다. 그러한 편견 때문에 월남인들은 무시당하거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다. 이들은 경계심이 심하고 남을 불신하는 경향이 강한 편이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계속되는 낙인으로 인한 자신감 상실이기도 했다. 사회적 편견은 그들이 반공 이데올로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과거의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면서 스스로를 타자화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들은 과거의 자신을 현재의 자신과 분리시킴으로서, 이북 주민들을 ‘그들’로, 이남 주민들을 ‘우리’로 바꾸어 나가게 되었다(김귀옥, 1999: 276).

많은 월남 1세대들은 스스로 부여하는 정체성과 타인이 그들을 보는 인식 사이에서 혼동을 경험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정착촌, 동갑계, 동향 모임, 노인회, 기타 마을 조직을 중심으로 동질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해나갔다. 정착촌 월남인의 자아에 있어서 대부분 ‘부지런하다’, ‘억세다’, ‘집념이 강하다’, ‘자립심이 강하다’ 등의 긍정적인 의식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따라서 월남 1세대들은 정착 초기부터나 과정에서 동향인 중심으로 집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향인 중심으로 경제생활을 하면서 문화적 특성을 공유하며 정착민으로서의 의식을 형성시켜

나갔다. 그들의 집단적인 특성은 남한에 정착하면서부터 나타났으므로 '출현적 정체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김귀옥, 1999: 276).

월남인 2세대들은 대부분 남한에서 태어났거나 남한에서 유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1세대들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폭넓은 사회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1세대들보다 동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한다. 이들은 이복에 대한 향수나 애착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들도 1세대들과 마찬가지로 월남인이라는 동질집단의 울타리 안에서 자신을 그 일원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2. 정체성 이론

정체성은 사회적 삶에서 개인의 위치를 의미한다. 특히 사회적 정체성은 개인이 사회생활에 참여하고 타인과 동일시하면서 오랫동안 쌓인 자아의식을 지칭한다. 사회정체성의 한 형태로서 이산가족의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민족정체성(ethnic identity)이다. 민족정체성은 광범위하게 정의한다면 공유된 민족적 특성들로 인해 어느 한 개인이 어느 특정 민족 집단에 대해 느끼는 소속감이다(Shibutani and Kwan, 1965; Phinney, 1990). 이것은 한 개인의 자기개념(self-concept)의 일부분인데 이것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민족적 정체를 스스로 정의하거나 또는 타인들에 의해서 정의되어 질 수 있다(Uba, 1994).

우바 (Uba)는 민족정체성이 ① 한 개인이 자신의 민족 집단에 대한 일반 지식, 신념, 기대들을 일으키고, ② 그가 사물, 상황, 그리고 타인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들의 의미를 해석하느냐를 결정짓는 인지적, 정보처리적 틀(framework) 또는 필터(filter)로서 기능하며, ③ 그의 행위 기준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민족정체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민족집단에 강하게 동일시하고, 애착을 느끼고, 동료 구성원들과 긴밀한 상호작용을 한다.

민족정체성은 한 개인의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데 그 이유는 그것을 통해 한 개인이 자신을 평가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관한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한 개인의 민족정체성은 그의 자긍심 (self-esteem)과 긍정적으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고 한다(Uba, 1994). 다시 말하면 자신의 민족정체성에 대해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면 자신의 가치 또한 높게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민족정체성은 칼 마르크스가 말한 대자적 집단(a group in itself)과 같이 단지 공통의 생물학적, 역사적 기원과 문화를 소유한 한 '범주'로서의 사람들(a category of people)을 독자적 집단(a group for itself)과 같이 일련의 목표와 이해관계에 의해 강한 응집력과 단결을 가진 '집단'으로서의 사람들(a group of people)로 변환시키는 초석이 되는 것이다(Peterson, 1980).

그런데 민족정체성은 이민 1세대와는 달리 이민 2세대와 같이 거주국에서 출생하고 성장하

여 모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간접적이고 피상적으로 배우고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고정된 상수라기보다는 변화하는 변수이다. 이민 1세대는 모국에서 성장하면서 선택이 없는 상황에서 민족정체성을 갖게 되어 1세대 내에는 민족정체성 수준에 개인차가 크지 않다. 반면 이민 2세대는 간접 체험과 주로 가정 내에서의 사회화를 통해 민족정체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개인의 성장과정과 특히 가정 내에서의 사회화의 내용에 따라 2세대간에는 민족정체성 수준에 개인차가 크게 발생한다. 미국의 재미한인 차세대(1.5세대와 2세대)에 관한 윤인진(2005)의 연구에 따르면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와 대화할 때 한국어를 사용하거나 한국어 교육을 강조하거나 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줄 때 자녀의 한국어 능력이 높고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 가족 내의 자녀들 간에 한국어 능력, 언어사용 패턴, 친구관계, 민족정체성과 애착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런 개인차는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고 자녀들이 어렸을 때 각자가 한국과 한국적인 것(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인 등)에 대해 가진 태도, 성향, 친근성 등이 점차 확대 증폭되면서 성인이 되어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차이로 커지게 되는 것이다.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라고 불리는 이 현상으로 인해 자녀가 어렸을 때 한국과 한국적인 것(Koreanness, 예를 들어, 한국인, 한국어, 한국문화 등)에 갖는 태도와 성향이 이후의 사회관계와 한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와 능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연구결과는 재외동포 차세대의 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어렸을 때부터 한국과 한국어, 그리고 한국문화에 대해 친숙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같은 맥락에서 이산 1세대에게는 이산가족 정체성이 주어진 것이고 정체성 수준의 개인차가 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산 2세대의 경우에는 주로 가정 내에서 부모의 교육에 의해 이산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가정 특성, 특히 가정 내에서의 사회화 내용에 따라 이산가족 정체성 수준에 개인차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이산가족의 전반적인 정체성 수준과 내용을 경험적인 조사를 통해 분석하고 이산 1세대와 2세대 간의 정체성 수준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앞에서 제시하였듯이 가정 내에서 부모의 사회화 내용에 따라 2세대의 이산가족 정체성 수준에 차이가 생기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산가족 정체성의 측정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연구자들이 설문문항들을 만들어서 사용하였기에 연구결과들을 비교하기 어렵게 되어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소규모의 편의표본에 기초하여 질적 조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국 차원에서 확률표본을 추출하여 체계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정체성 측정과 관련해서도 연구자가 자의적으로 척도를 구성하기보다는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이미 검증된 척도를 사용하기로 하고 미국에서 민족정체성

척도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피니(Phinney, 1992)의 “다집단 민족정체성 척도(Multigroup Ethnic Identity Measure)”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12개 문항들 중 내용이 중복되는 문항들을 피하고 한국의 이산가족 상황에 적합한 6개의 문항들을 척도로 사용하였다. Phinney의 민족정체성 척도 원본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아래와 같다(진하게 표시된 문항들이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표 1> 이산가족 정체성 관련 질문

| 번호 | 질문항목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
| 1 | 이산가족의 역사, 전통, 관습 등에 대해 알고 노력한다. | | | | |
| 2 | 주로 이산가족들로 구성된 조직체 또는 사회단체(협회, 동호회, 동향인 모임 등)에 활발하게 참여한다. | | | | |
| 3 | 나의 이산가족 배경에 대해 잘 안다. | | | | |
| 4 | 내가 이산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이 내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 | | | | |
| 5 | 내가 이산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이 기쁘다. | | | | |
| 6 | 이산가족에 대해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 | | | | |
| 7 | 내가 이산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안다. | | | | |
| 8 | 다른 사람들에게 이산가족들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 | | | |
| 9 | 내가 이산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 | | | |
| 10 | 고유음식, 음악, 풍습과 같은 이산가족의 전통 문화와 관습을 잘 지킨다. | | | | |
| 11 | 이산가족에 대해 강한 애착을 느낀다. | | | | |
| 12 | 나의 이산가족 배경에 대해 좋게 생각한다. | | | | |

IV. 분석

1. 세대별 이산가족 정체성 수준 비교

“이산가족의 역사, 전통, 관습 등에 대해 알고 노력한다”는 문항에 전체 응답자의 52.5%에 해당하는 268명이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반면 ‘그렇지 않다’ 또는 ‘매우

그렇지 않다'로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들은 241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47.3%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산가족의 역사, 전통, 관습 등에 대해 알려는 응답자들이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에게 비교해서 조금 더 많으나 두 집단 간의 차이는 크지 않다. 세대별로 비교하면 위 문항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한 사람들의 비율은 1세대 중에서 54.9%인데 비해 2세대 중에서는 49%로 나타나 1세대가 이산가족의 역사, 전통, 관습 등에 대해 더욱 알려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카이제곱을 통한 차이검증 결과 세대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되었다.

<표 2> 이산가족의 역사, 전통, 관습 등에 대해 알려고 노력하는 정도

| 구분 | 전체 | | 1세대 | | 2세대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매우 그렇다 | 67 | 13.1 | 48 | 15.6 | 19 | 9.4 |
| 그렇다 | 201 | 39.4 | 121 | 39.3 | 80 | 39.6 |
| 그렇지 않다 | 180 | 35.3 | 105 | 34.1 | 75 | 37.1 |
| 전혀 그렇지 않다 | 61 | 12.0 | 34 | 11.0 | 27 | 13.4 |
| 계 | 509 | 99.8 | 308 | 100 | 201 | 99.5 |
| 결측 | 1 | 0.2 | 0 | 0 | 1 | 0.5 |
| 합계 | 510 | 100.0 | 308 | 100 | 202 | 100 |

주: $\chi^2 = 4.4$, d.f. = 3, p-value = .22 (세대간 차이가 $\alpha=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이산가족들로 구성된 조직체 또는 사회단체(협회, 동호회, 동향인 모임 등)에 대해 활발하게 참여한다”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0.8%에 해당하는 157명이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352명(69.2%)이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여 이산가족들로 구성된 조직체 또는 사회단체에의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가족 조직체 또는 사회단체 참여도를 세대별로 비교하면 1세대 응답자의 38.3%가 활발하게 참여한다고 응답한 반면 2세대 응답자의 19.3%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여 조직체 참여도에서 세대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이산가족들로 구성된 조직체 또는 사회단체에 참여하는 정도

| 구분 | 전체 | | 1세대 | | 2세대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매우 그렇다 | 60 | 11.8 | 48 | 15.6 | 12 | 5.9 |
| 그렇다 | 97 | 19.0 | 70 | 22.7 | 27 | 13.4 |
| 그렇지 않다 | 180 | 35.3 | 103 | 33.4 | 77 | 38.1 |
| 전혀 그렇지 않다 | 172 | 33.7 | 87 | 28.2 | 85 | 42.1 |
| 계 | 509 | 99.8 | 308 | 100 | 201 | 99.5 |
| 결측 | 1 | 0.2 | 0 | 0 | 1 | 0.5 |
| 합계 | 510 | 100.0 | 308 | 100 | 202 | 100 |

주: $\chi^2 = 23.0$, d.f. =3, p-value = .00 (세대간 차이가 $\alpha=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나의 이산가족 배경에 대해 잘 안다”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4.7%에 해당하는 381명이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응답을 하였다. 자신의 이산가족 배경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25.3%에 해당했다. 1세대 중에서 자신의 이산가족 배경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20.8%이고 2세대 중에서 그런 사람들의 비율은 32.1%였다. 1세대 중에 자신의 이산가족 배경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린 나이에 남한으로 이주한 사람들일 것으로 예측된다.

<표 4> 자신의 이산가족 배경에 대해 아는 정도

| 구분 | 전체 | | 1세대 | | 2세대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매우 그렇다 | 155 | 30.4 | 112 | 36.4 | 43 | 21.3 |
| 그렇다 | 226 | 44.3 | 132 | 42.9 | 94 | 46.5 |
| 그렇지 않다 | 101 | 19.8 | 47 | 15.3 | 54 | 26.7 |
| 전혀 그렇지 않다 | 28 | 5.5 | 17 | 5.5 | 11 | 5.4 |
| 계 | 510 | 100.0 | 308 | 100 | 202 | 100 |
| 합계 | 510 | 100 | 308 | 100 | 202 | 100 |

주: $\chi^2 = 17.6$, d.f. =3, p-value = .00 (세대간 차이가 $\alpha=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내가 이산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라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2.7%에 해당하는 167명이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런데 더욱 많은 응답자들

(341명, 66.8%)이 위의 문항에 대해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여 이산가족들이 자신들이 이산가족이라는 사실에 대해 자부심을 크게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비교하면 자부심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1세대 중에서 61.7%이고 2세대 중에서 74.8%로서 세대차가 나기는 하지만 1세대 중에서도 자부심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에 비교해서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이산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정도

| 구분 | 전체 | | 1세대 | | 2세대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매우 그렇다 | 47 | 9.2 | 34 | 11.0 | 13 | 6.4 |
| 그렇다 | 120 | 23.5 | 82 | 26.6 | 38 | 18.8 |
| 그렇지 않다 | 245 | 48 | 136 | 44.2 | 109 | 54.0 |
| 전혀 그렇지 않다 | 96 | 18.8 | 54 | 17.5 | 42 | 20.8 |
| 계 | 508 | 99.6 | 306 | 99.4 | 202 | 100 |
| 결측 | 2 | 0.4 | 2 | 0.6 | 0 | 0 |
| 합계 | 510 | 100 | 308 | 100 | 202 | 100 |

주: $\chi^2 = 9.01$, d.f. =3, p-value = .03 (세대간 차이가 $\alpha=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이산가족에 대해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라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6.9%에 해당하는 238명이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그보다 약간 많은 수의 응답자들(269명, 53.1%)이 ‘그렇지 않다’ 또는 ‘매우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였다. 앞의 자부심 문항에서도 나타났듯이 이산가족들이 이산가족에 대한 소속감 정도도 전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1세대에 비교해서 2세대의 이산가족에 대한 소속감은 낮았으며 세대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6> 이산가족에 대해 소속감을 느끼는 정도

| 구분 | 전체 | | 1세대 | | 2세대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매우 그렇다 | 78 | 15.3 | 64 | 20.8 | 14 | 6.9 |
| 그렇다 | 160 | 31.4 | 102 | 33.1 | 58 | 28.7 |
| 그렇지 않다 | 200 | 39.2 | 107 | 34.7 | 93 | 46.0 |
| 전혀 그렇지 않다 | 69 | 13.5 | 34 | 11.0 | 35 | 17.3 |
| 계 | 507 | 99.4 | 307 | 99.7 | 200 | 99.0 |
| 결측 | 3 | 0.6 | 1 | 0.3 | 2 | 1.0 |
| 합계 | 510 | 100 | 308 | 100 | 202 | 100 |

주: $\chi^2 = 23.6$, d.f. =3, p-value = .00 (세대간 차이가 $\alpha=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산가족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는 문항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한 사람들과 부정적인 응답을 한 사람들이 반 반 정도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비교하면 1세대 중에서 이산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56.5%인데 비해 2세대의 비율은 39.1%에 불과해 2세대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산가족에 대해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다른 사람들에게 이산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는 정도

| 구분 | 전체 | | 1세대 | | 2세대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매우 그렇다 | 72 | 14.1 | 56 | 18.2 | 16 | 7.9 |
| 그렇다 | 181 | 35.5 | 118 | 38.3 | 63 | 31.2 |
| 그렇지 않다 | 189 | 37.1 | 103 | 33.4 | 86 | 42.6 |
| 전혀 그렇지 않다 | 67 | 13.1 | 31 | 10.1 | 36 | 17.8 |
| 계 | 509 | 99.8 | 308 | 100 | 201 | 99.5 |
| 결측 | 1 | 0.2 | 0 | 0 | 1 | 0.5 |
| 합계 | 510 | 100 | 308 | 100 | 202 | 100 |

주: $\chi^2 = 19.2$, d.f. =3, p-value = .00 (세대간 차이가 $\alpha=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위의 결과들을 요약하면 이산가족들의 이산가족 정체성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이산가족이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이산가족의 역사, 전통, 관습 등에 대해 알려고 하거나, 이산가족으로 구성된 조직체 또

는 사회단체에 활발하게 참여하거나, 이산가족으로서 자부심과 소속감을 갖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산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전체 응답자의 반이 되거나 그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세대의 이산가족 정체성은 1세대에 비교해서 낮았으며, 세대간 차이는 이산가족의 역사, 전통, 관습에 대해 알려고 노력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2. 가정 내에서의 이산가족 사회화 정도

앞에서 논의했듯이 2세대의 이산가족 정체성은 가정에서 부모의 사회화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산가족의 배경과 자부심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가르치고 강조할수록 자녀의 이산가족 정체성은 높아질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귀하의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이북의 고향과 친척 또는 이북에서의 경험 등에 대해 얼마나 자주 이야기하거나 하셨습니까?”라는 문항을 응답자들에게 질문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228명(44.7%)이 부모로부터 매우 자주 또는 자주 이북의 고향, 친척,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으로 보고하였다. 반면 이보다 약간 많은 수인 273명(53.5%)은 이북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듣지 못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이산가족 1세대가 2세대에게 이산가족의 배경과 역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전수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8> 부모가 자녀에게 이북의 고향, 친척, 경험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정도

| 구분 | 전체 | | 1세대 | | 2세대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매우 그렇다 | 75 | 14.7 | 53 | 17.2 | 22 | 10.9 |
| 그렇다 | 153 | 30.0 | 99 | 32.1 | 54 | 26.7 |
| 그렇지 않다 | 209 | 41.0 | 121 | 39.3 | 88 | 43.6 |
| 전혀 그렇지 않다 | 64 | 12.5 | 30 | 9.7 | 34 | 16.8 |
| 계 | 501 | 98.2 | 303 | 98.4 | 198 | 98.0 |
| 결측 | 9 | 1.8 | 5 | 1.6 | 4 | 2 |
| 합계 | 510 | 100 | 308 | 100 | 202 | 100 |

주: $\chi^2 = 9.9$, d.f. = 3, p-value = .02 (세대간 차이가 $\alpha=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귀하의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이산가족이라는 점을 강조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193명(37.8%)만이 강조하고 그보다 훨씬 많은 311명(62.2%)이 강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1세대 응답자들이 자녀에게 이산가족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정도가 2세대 응답자들에 비교해서 높지만 1세대 응답자 중에서도 44.8%만이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들은 앞서 이산가족 정체성 척도를 통해서 밝혀진 것과 같이 전체적으로 이산가족들이 가정 내에서 자녀들에게 이산가족으로서의 사회화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9>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이산가족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정도

| 구분 | 전체 | | 1세대 | | 2세대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매우 강하게 | 65 | 12.7 | 47 | 15.3 | 18 | 8.9 |
| 다소 강하게 | 128 | 25.1 | 91 | 29.5 | 37 | 18.3 |
| 별로 하지 않음 | 242 | 47.5 | 134 | 43.5 | 108 | 53.5 |
| 전혀 하지 않음 | 69 | 13.5 | 31 | 10.1 | 38 | 18.8 |
| 계 | 504 | 98.8 | 303 | 98.4 | 201 | 99.5 |
| 결측 | 6 | 1.2 | 5 | 1.6 | 1 | .5 |
| 합계 | 510 | 100 | 308 | 100 | 202 | 100 |

주: $\chi^2 = 19.4$, d.f. = 3, p-value = .00 (세대간 차이가 $\alpha=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부모가 자녀에게 이산가족 사회화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산가족 동향회 활동 등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하는 자신의 가족 구성원이나 자녀들이 이산가족 동향회 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22.5%만이 가족 구성원이나 자녀가 이산가족 동향회 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55.7%에 달했고 21%의 응답자는 가족 구성원이나 자녀의 의견에 따른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인의 이산가족 조직체 또는 사회단체 참여도도 낮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구성원과 자녀가 이산가족 동향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가족이 이산가족 동향회 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정도

| 구분 | 전체 | | 1세대 | | 2세대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예 | 115 | 22.5 | 85 | 27.6 | 30 | 14.9 |
| 아니오 | 284 | 55.7 | 159 | 51.6 | 125 | 61.9 |
| 가족 구성원이나 자녀의 의견에 따름 | 106 | 20.8 | 60 | 19.5 | 46 | 22.8 |
| 계 | 505 | 99.0 | 304 | 98.7 | 201 | 99.5 |
| 결측 | 5 | 1.0 | 4 | 1.3 | 1 | 0.5 |
| 합계 | 510 | 100 | 308 | 100 | 202 | 100 |

주: $\chi^2 = 11.7$, d.f. = 2, p-value = .00 (세대간 차이가 $\alpha=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3. 이산 2세대의 이산가족 정체성 수준의 결정요인

앞서 지적하였듯이 이산 2세대의 이산가족 정체성은 주어진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인식 여하에 따라 가변적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성장 배경과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 이산 2세대 중에는 이산가족 정체성 수준에 개인차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종속변수로 이산 2세대 응답자의 이산가족 정체성 수준으로 잡고, 독립변수로 연령, 성별, 이산 당시 연령, 출생 지역과 인구통계학적 변수, 학력과 경제적 계층지위와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 가족 내에서의 사회화 변수를 선정하였다. 여기서 학력과 경제적 계층지위는 고든(Gordon, 1964)이 지적한 구조적 동화 수준을 표시하는 것으로 해석한다.¹⁾ 고든은 동화의 일곱 단계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구조적 동화이며 이 단계를 넘어서면 정체성과 태도와 같은 심리적 동화가 자연적으로 따라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이론을 따르면 개인의 학력수준과 경제적 계층지위가 높을수록 주류사회에의 구조적 동화가 일어나서 이산가족 정체성은 약화될 것으로 예측한다. 이와는 반대로 가족 내에서의 사회화는 이산 2세대의 이산가족으로서의 동일시와 애착 수준을 높여서 이산가족 정체성은 강화될 것으로 예측한다. 이런 예측을 연구가설 형태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1) 고든(Gordon, 1964)은 파크(Park, 1950)가 제안한 직선적이고 언제나 전진적인 동화론을 수정하여 단계적 동화론을 제안하였다. 고든에 따르면 동화에는 문화적, 구조적, 혼인적, 정체적, 태도 수용적, 행위 수용적, 시민적 동화의 일곱 단계가 있다고 한다.

연구가설 1: 학력과 경제적 계층지위가 높을수록 이산가족 정체성 수준은 낮을 것이다.

연구가설 2: 가족 내에서의 사회화 정도가 강할수록 이산가족 정체성 수준은 높을 것이다.

종속변수는 앞에서 설명한 6개의 정체성 문항들의 평균값으로 정했다. 6개 문항들을 요인분석을 통해 단일차원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한 개의 요인으로 묶이는 것을 확인했다. 6개 문항들 간의 크론바하 알파값은 0.79로 척도로서의 신뢰도 수준은 낮지 않은 것으로 판정됐다.

<표 11> 이산가족 정체성 척도 요인분석 결과(주성분분석)

| 문항 | 요인 1 |
|--------------------------------|------|
| 이산가족의 역사, 전통, 관습 등에 대해 알고 노력한다 | .736 |
| 이산가족들로 구성된 조직 또는 단체에 활발하게 참여한다 | .617 |
| 나의 이산가족 배경에 대해 잘 안다 | .540 |
| 내가 이산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 .720 |
| 이산가족에 대해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 | .822 |
| 다른 사람들에게 이산가족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한다 | .753 |

주: 요인분석결과 KMO(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값이 0.83(유의도 수준 0.000)으로 나타나 분석결과의 설명력이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판정됨.

가정 내에서의 사회화 정도는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자신의 고향과 이산가족의 경험에 대해 언급하는 정도와 이산가족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정도로 측정하였다. 이 두 문항들은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 개의 요인으로 묶이는 것을 확인했고, 두 문항의 크론바하 알파값은 0.8로서 척도로서의 신뢰성 수준은 높은 것으로 판정됐다. 따라서 가정 내에서의 사회화 변수는 위 두 문항의 평균값으로 정했다. 분석에 사용된 이산 2세대 응답자는 총 202명이다.

<표 12>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 설명

| 변수 | 변수 설명 | | |
|-------------|---|--|------------------|
| 이산가족 정체성 수준 | 1(가장 낮음) ~ 4(가장 높음) (비율변수) | | |
| 성별 | 1(남자) / 2(여자) (이분변수) | | |
| 현재 연령 | 1(10대 이하) ~ 8(80대 이상) (서열변수) | | |
| 이산 당시 연령 | 1(10대 이하) ~ 6(50대 이상) (서열변수) | | |
| 학력 | ① 서당 및 야학, ③ 국민(인민)학교, ⑤ 5년제 중학교, ⑦ 전문대학, ⑨ 대학원 | ② 안다녔음(무학) ④ 3년제 중학교 ⑥ 고등학교 ⑧ 대학교 | |
| 경제적 계층 | ① 하의 하 ④ 중의 상 | ② 하의 상 ⑤ 상의 하 | ③ 중의 하 ⑥ 상의 상 |
| 가족 내 사회화 정도 | 1(가장 낮음) ~ 4(가장 높음) (비율변수) | | |

이산 2세대의 이산가족 정체성 수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변수(현재 연령, 성별, 이산 당시 연령)는 정체성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현재 연령과 이산 당시 연령의 효과가 적은 것은 응답자 대부분이 70대 이상의 고령이기 때문에 연령에 있어서의 개인차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학력, 경제적 계층 지위) 역시 예상과는 달리 정체성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 결과는 학력 및 계층면에서 주류사회로의 구조적 동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산 2세대의 이산가족 정체성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체성 수준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 내에서의 사회화였다. 사회화 변수 하나만으로 개인의 정체성 수준의 변이를 37% 가량 설명하였다. 이 결과는 가족 내에서 이산 1세대가 2세대 자녀들에게 이북의 연고와 경험을 학습시키고 이산가족이라는 점을 강조할수록 이산 2세대가 이산가족이라는 정체성을 강하게 갖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13> 이산가족 정체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회귀분석 결과(표준화회귀계수)

| 변수 | 모델 1 | 모델 1 | 모델 1 | 모델 1 |
|----------|------|------|-------|-------|
| 현재 연령 | -.06 | -.07 | -.11 | -.14 |
| 성별 | .02 | -.03 | .01 | .04 |
| 이산 당시 연령 | .08 | .09 | .12 | .15 |
| 학력 | - | -.08 | - | .03 |
| 경제적 계층 | - | .04 | - | .02 |
| 사회화 정도 | - | - | .60** | .59** |
| N | 197 | 166 | 192 | 162 |
| R2 | 0% | 1% | 34% | 34% |

*p<0.05, **p<0.01

V. 요약 및 정책 제언

남한에 거주하는 이산가족의 대부분은 1950~53년 한국전쟁 중에 월남하였다. 이산 당시 10대~20대가 대부분이었던 이산가족 1세대는 현재 절대 다수가 70대 이상의 고령자가 되었다. 이산 2세대도 대다수가 70대 이상의 고령자여서 10년 후에는 이산가족 1세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학적 측면에서 이산가족의 절대 감소 외에도 이산 2세대의 이산가족 정체성의 약화는 이산가족이라는 독특한 사회집단의 존재가 아예 소멸되거나 아니면 아주 축소된 집단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한다.

이산가족정보센터에 등록된 전국의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이산가족들의 이산가족 정체성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이산가족이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이산가족의 역사, 전통, 관습 등에 대해 알려고 하거나, 이산가족으로 구성된 조직체 또는 사회단체에 활발하게 참여하거나, 이산가족으로서 자부심과 소속감을 갖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산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전체 응답자의 반이 되거나 그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산 2세대의 이산가족 정체성은 1세대에 비교해서 낮았으며, 세대간 차이는 이산가족의 역사, 전통, 관습에 대해 알려고 노력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산 2세대의 정체성이 부모로부터의 사회화에 많은 부분 기인한다고 볼 때 이산 1세대가 적극적으로 자녀에게 이산가족의 경험과 정체성에 대해 강조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것은 이산가족의 미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 조사 결과 대다수의 이산 1세대가 자녀세대에게 이북

의 고향, 친척, 경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자녀가 이산가족이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가 이산가족 동향회 활동 등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 이산가족 정체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변수, 사회경제적 변수들은 아무런 효과를 갖지 못하지만 가족 내에서의 이산가족 사회화만이 유일하게 효과를 갖는 것을 고려하면 이산가족 내에서의 소극적인 사회화가 이산 2세대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 기초하여 필자들은 이산가족 정책의 범위와 대상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조정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통상적으로 이산가족은 300만 명이 넘는 대규모의 사회집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2005년 통계청 인구조사에는 71만 명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본 연구에서도 대다수의 이산가족이 자신을 이산가족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한 정부 정책(예를 들어, 가족상봉 및 교류, 이산가족 생사확인 등)은 이산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하고 이산가족 문제해결에 대한 욕구와 필요가 강한 사람들을 주된 대상으로 삼고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조사 결과 이산가족들은 이산가족 생사확인과 주소확인을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의 대북정책은 생사확인과 주소확인을 확대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권찬. 2000. "이산가족문제의 현황과 대책." 『민족연구』 제5호.
- 김귀옥. 1999. 『월남민의 생활 경험과 정체성』. 서울대학교출판부.
- 윤여상·이삼식·윤인진·이금순·엄홍석. 2006. 『이산가족 실태조사 보고서』. 북한인권정보센터.
- 윤인진 외 공역. 2001. 『자아와 사회: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사회심리학』. (Self and Society: A Symbolic Interactionist Social Psychology) (John P. Hewitt). 서울: 학지사.
- 윤인진. 2005. "재외동포 차세대 현황과 한민족공동체로의 포용방안: 재미동포를 중심으로" 『재외한인연구』 13호: 191-243.
- 이용기. 1998. "이산가족 연구 어디까지 왔나." 『역사비평』 가을호.
- 임순희. 2001. "기획: 이산가족과 탈북자 문제 고찰- 남북이산가족 문제의 현황과 과제."
- Gordon, Milton. 1964. *Assimilation in American Life: The role of Race, Religion, and National Origi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ark, Robert. 1950. *Race and Culture*. Glencoe, IL: Fress Press.

Peterson, William. 1980. "Concepts of Ethnicity." Pp. 234-242 in *The Harvard Encyclopedia of American Ethnic Groups*, edited by Stephan Thernstrom.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Phinney, Jean. 1990. "Ethnic Identity in Adolescents and Adults: Review of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08:499-514.

_____. 1992. "The Multigroup Ethnic Identity Measure: A new scale for use with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from diverse group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7: 156-176.

Shibutani, Tamotsu, and Kian Kwan. 1965. *Ethnic Stratification: A Comparative Approach*.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Uba, Laura. 1994. *Asian Americans: Personality Patterns, Identity, and Mental Health*. New York: Guilford Press.